

창립 1주년 맞은 HS효성그룹, 주가 상한가 ‘겹경사’

신소재 중심 사업 재편 글로벌 불확실성 속 경영체제 조기 안착
이익액 작년비 25% 이상 성장…이차전지·반도체·AI 투자 가속
조현상 부회장 “과학·기술 바탕으로 가치 창출 지속가능성 추구”

HS효성이 창립 1주년을 맞아 주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겹경사’ 궤거를 이뤘다. HS효성의 주가 상한가 기록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 선전한 경영 성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소재 중심 사업 재편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HS효성은 실제 안정적인 경영 체제를 확립하며, 지난해보다 25% 이상 성장한 영업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일 HS효성그룹에 따르면 지난 30일 서울시 마포구 본사에서 창립 기념행사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도약을 다짐했다. 행사에는 전세계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내외 20여개 사업장이 온라인을 통해 참여해 HS효성의 첫해를 축하했다. HS효성은 1주년을 맞아 안정적 수익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오랜 기간 핵심 사업이었던

던 타이어용 스티프코드 부문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HS효성은 수익성이 높지만 성장 한계와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 등으로 미래 비전과의 연계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타이어용 스티프코드 대신 탄소섬유와 아라미드 섬유 등 고부가가치 신소재 분야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HS효성은 이차전지, 반도체 소재, 인공지능(AI)·데이터 관리 등 4대 신성장 분야를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제시하고, 벨기에 유미코아에 대한 투자를 포함해 글로벌 기술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하는 중이다. ESG 경영 강화 차원에서 재활용 타이어코드 등 친환경 소재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HS효성의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자동차 2대 중 1대에 사용될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는 HS효성이 보유한 전통적 기술 경쟁력의 단단한 기반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HS효성이 창립 1주년(7월 1일)을 기념해 지난 28일 임직원 자녀 초청 패밀리데이를 진행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주)효성 산업재PG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10여년간 패밀리데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독자 기술로 2011년 개발된 탄소섬유 ‘탄섬’은 전주 공장을 중심으로 지난 1년 사이 베트남·중국까지 생산 기반을 넓혔으며 아라미드 섬유 ‘알

렉스’와 함께 항공우주·AI·국방·조선 등에 폭넓게 활용되면서 글로벌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창립 행사에서 “HS효

성의 비전은 과학·기술 바탕의 지적 자산과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가치의 창출”이라며 “이 철학은 단기 이익을 넘어서 장기 지속가능성과 항상 승리하고 건강한 조직 운영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경영의 중심축”이라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이어 “앞으로는 AI 등 기술 혁명으로 ‘깊이’의 싸움이 치열할 것”이라며 “최근 강화된 R&D 활동을 통해 과학·기술·지적 자산, 우리 모두의 집단지성으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깊이를 만들어 유일의 가치를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이날 HS효성 주가는 종가 기준 전 거래일 대비 29.93%(2만 1100원) 오른 9만 1600원으로 장을 마쳤다. HS효성은 장중 상한가를 기록한 뒤 같은 가격을 유지했고, 넥스트레이드(NXT)에서도 29.93%(2만 1100원) 오른 9만 1600원에 거래됐다. HS효성이 지주회사 체제 1년을 맞아 안정적 수익 사업과 단기 실적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소재·고부가 가치 분야로 사업을 재편한 것에 대한 기대감과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소식 등이 겹치면서, 주가 상한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AI·모빌리티 도시 조성 등 국정 과제 반영 힘 모으자”

광주상의 현안 반영 정책 간담회
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공약 논의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 수립에 나서면서 광주시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계와 정치권 등이 지역 현안과 과제 반영을 목표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1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지난 30일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광주지역 핵심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요 경제 현안과 대선 공약 정책 반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광주상의가 주관한 간담회에는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양부남(광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정준호(광주 북구갑)·전진숙(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지역 경제계 인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 공항 조성,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 영산강·광주천 수변 활력도시 조성,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 ‘광주시 7대 지역 공약’과 광주상의의 제21대 대선 공약 제안 내용 등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중교통·자전거·보행(대자보) 중심 교통 인프라 구축과 교육·창업·실증 도시 조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도 제시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대통령실이 민·군 통합공항 이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강기정 광주시장, 양부남(광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정준호(광주 북구갑)·전진숙(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등이 지난 30일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광주지역 핵심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정책 간담회’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상의 제공>

전에 대해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지역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공감대를 모았다. 또 ‘인공지능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1단계 사업)’ 이후 준비 중인 ‘AX(AI Transformation) 실증밸리 조성사업(2단계 사업)’의 필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공유됐다. 한상원 회장은 “광주는 AI, 미래차·모빌리티, 문화 콘텐츠 등 미래 산업의 가능성이 응집된 도시지만 재정 자립도는 낮고 세수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성장과 산업 육성을 위해 국

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지자체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사업은 중앙정부의 전략적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실행 가능성과 타당성을 갖춘 지역 공약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앙정부와의 실질적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상의는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한 지자체·정치권·유관기관과의 정책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정부 지방 건설계약 ‘물가변동 기준’ 완화 침체한 지역 건설 경기 회복 마중물 되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공사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 적정 공사비를 보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계약의 물가 변동 적용 기준을 완화하기로 해 침체한 지역건설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된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가 계약의 해지나 재공고 유찰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될 때 계약금에 물가 변동을 적용하는 시점을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앞당긴다. 이렇게 되면 최초 입찰공고일부터 수의계약 체결 시점까지의 자재비나 인건비 등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 업체는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특정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인 상황 때 물가 변동 적용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10% 이상만 인상돼도 물가 변동분이 반영되도록 했다.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은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늘린다. 분쟁 사유에는 계약의 해지·해지 관련 사항을 더해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보증서 발급기관엔 조달공제조합을 추가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일반관리비’에 대한 비율을 종합 공사 규모의 6%에서 8%로 상향했다. 지방계약 예규에서는 관련별 제정 이래 처음으로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률을 2%포인트씩 상향했다. 이를 통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공사목적물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제도 개선이 시행돼 건설 현장의 안정성과 지역업체 성장, 조달 투명성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계약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지역건설의 회복이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기아, 신차 호조 상반기 판매량 역대 최대

158만 7161대…EV4 인기

기아가 레저용 차량(RV)과 친환경차 인기에 역대 최대 상반기 판매를 기록했다. 특히 기아 최초 픽업트럭 타스만과 최초 전기 세단 EV4가 판매 호조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기아는 “올해 상반기 국내 27만 6423대, 해외 130만 8636대, 특수 2102대 등 158만 7161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기아가 1962년 자동차 판매를 시작한 이래 역대 상반기 최대 판매 실적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판매량(155만 5697대)보다 2.0% 증가한 수치이며 이전 최대 상반기 판매 기록을 세운 2023년(157만 6016대)보다

0.7% 많다. 기아의 올해 상반기 최대 판매 차량 1~3위는 모두 전통의 인기 RV 모델이었다. 올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은 스포티지(28만 3512대)였으며 셀토스가 15만 1049대, 쏘렌토가 13만 7461대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 2월에 선보인 기아 최초 픽업트럭 타스만은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만 1302대 판매로 인기를 입증했다.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 호조 속에 EV4 등 신차 판매량도 증가했다. 기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타스만, EV4 수출 본격화와 PV5-EV5 등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를 통한 판매 성장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은 “가계대출 8~9월 급증 가능성…금리인하에 신중”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말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될 수 있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1일 한은 등에 따르면 유상대 부총재 등 집행 간부들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이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됐다”며 “6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18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거래량도 지난해 최고치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특히 “항후 가계대출은 이런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이 한 달 사이 10조원 가까이 늘며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지난해 8월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월간 증가액은 올해 5월 6조원에 이어 6월 이미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더라도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한은의 고민이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3089.65 (+17.95)
코스닥	783.67 (+2.17)
금리 (국고채 399년)	2.454 (+0.002)
환율 (US D)	1354.00 (+4.00)
〈오후 4시 35분 기준〉	

광주신세계 대학생 12명 참여 업무 경험 현장실습 교육 시작

광주신세계는 “지역 대학생들에게 현장 업무 경험 및 취업을 지원하는 ‘2025학년도 하계 현장실습교육’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이번 교육에는 취업을 앞둔 전남대와 조선대 3~4학년 학생 12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오는 25일까지 1달여에 걸쳐 영업 등 백화점의 각 파트별 현장 교육을 통해 실무를 체험하고, 유통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교육 1주차에는 영업 등 실무자들과 만나 업무 설명을 듣고, 평소 유통업계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는 등 직무 탐색 시간을 갖는다. 2주차에는 고객 접점 현장에 현장자와 동행해 실제 직무를 체험하며, 3주차에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사회공헌 활동 체험 등 마케팅 실무를 경험한다. 4주차에는 모의면접을 진행하고, 면접 등에



대한 노하우를 얻는 등 취업 준비를 돕는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이번 현장실습 교육은 유통업계에 관심이 있는 인재들이 먼저 취업한 선배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미래 유통인을 꿈꾸는 지역 대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5화자를 맞은 광주신세계 현장실습교육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광주지역 대학생 41명이 참여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은행 ‘Wa! 소리나는 감탄 혜택 이벤트’

챔스필드 입장료 할인 등 혜택

광주은행은 “오는 9월 30일까지 ‘Wa! 소리나는 감탄 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GS리테일과의 협업을 통해 마련됐으며, 이벤트 기간 중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기아 챔피언스카드’를 발급받은 고객 가운데 광주은행 신용카드 최초 신규 고객 또는 발급 직전 6개월 간

결제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2000명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기아 챔피언스카드는 광주은행이 올해 지역 스포츠 구단인 KIA 타이거즈의 13번째 우승을 응원하기 위해 출시한 카드로, 조건없이 기아 챔피언스 필드 입장료를 최대 5000원 할인하는 ‘킬러 서비스’부터 경기장 내 팀 스토어, 식음료 매장, 편의점 등 다양한 혜택을 지녔다.

이번 이벤트는 조건 충족 시 별도의 응모 없이 자동 참여되며, 고객 당 GS25 오프라인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GS Pay 3000원’ 할인쿠폰 4매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방문, 광주 Wa뱅크 앱, 광주은행 홈페이지, KJ카드 헬프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석현 광주은행 디지털금융센터장은 “광주은행은 고객의 일상에서 유용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